『中國學』第60輯 (2017.09)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7.60.60.8
pp.123-140 ISSN : 1229-9618

‘结果’ 문법화 소고

백지훈*

【목 차】

1. 머리말
2. 현대중국어에서 ‘结果’기능
   1) 명사 ‘结果’
   2) 접속사 ‘结果’
   3) 담화표지 ‘结果’
3. ‘结果’의 문법화
4. 맺음말

【초록】

현대중국어에서 ‘结果’는 명사, 접속사, 담화표지 등의 기능으로 사용된다. 본고는 이 세 기능을 문법화의 결과로 보고, ‘结果’가 형성하고 있는 기능적 네트워크에 대해 문법화론의 주요 개념으로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논의는 크게 통사적 측면의 변화와 의미적 측면의 변화로 대별해 진행하였다. 통사적 측면에서의 변화 양상은 탈범주화로 설명되고, 재분석의 기제가 작동한 결과 명사에서 접속사와 담화표지로 문법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미적 측면에서는 먼저 ‘结果’의 어원어로서의 의미가 일반화되어 가는 점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结果’의 통사적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结果’의 의미 변화 양상은 의미지속성 원리, 잃고-얻기 모형 및 주관화의 각도 등의 측면에서도 설득력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다.

【키워드】 문법화, 탈범주화, 재분석, 일반화, 의미지속성 원리, 잃고-얻기 모형, 주관화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강사 (dashan7272@naver.com)

1. 머리말

현대중국어에서 '结果'는 내용어와 기능어[1]로서의 면모를 두루 갖추고 있다.[2] 아래의 예문을 보자.

(1) 我身体检查的**结果**出来了，哪儿都没问题。내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데도 이상이 없다.

(2) 他穿的衣服太少，**结果**感冒了。그는 옷을 너무 적게 입어서 감기에 걸렸다.

(3) 他亲自出马，**结果**事情还是没有办成。그가 직접 나섰지만, 일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4) 她们没想到，她们的节目排在了所有参赛学校的最后面；她们更没想到，参赛的学校一表演完就走了，都不留下来看别人的节目。**结果**，轮到她们上台的时候，下面只坐着三个评委，他们的脸上一点儿表情也没有！ 그녀들은 자신들의 공연이 참가 학교 중 맨 마지막에 배정 될 줄 몰랐다. 그리고 그들이 공연을 마치고 다른 사람의 공연은 보지도 않고 바로 가버릴 줄은 더더욱 몰랐다. 그래서 그녀들의 공연 차례가 되었을 때, 무대 아래에는 무표정한 세 명의 심사위원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5)[3]

宁高宁 ： 这个是很多人问的一个问题，我以前也讲过，孩子的名字是品牌嘛。我讲过一个故事给同事 ： 一个家里面有三个孩子，老大名字不响亮，就叫老大。那么老二呢，就叫了很多的名字，叫了很多化名，很多。

主持人：别人给老二起了很多个名字?

宁高宁：那么老三呢，就一个名字，叫啤震天，我跟他们讲。

主持人：啤家的啤震天?

宁高宁 ： 对，是的。**结果**这个啤震天最后呢，就当乡长了。当了乡长以后他父亲就奇怪，啤震天为什么可以做乡长呢? 乡里面开杂货铺的那个老板给这个父亲讲，说这很明白啊，孩子如果没有一个响亮的名字的话，他做不成人的。

(중략)

宁高宁：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啤震天은 나중에는 말이죠, 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친은 啤震天이 촌장이 된 사실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啤震天이 어떻게 촌장이 될 수 있었을까하고 말입니다. 마을에서 잡화점을 하던 주인이 그 부친에게 말하더랍디다. "이상할 것 없어요, 애가 이런 우렁찬 이름을 가지지 못했다면, 걘 사람 구실 못했을 거요."

---

1) 본고는 문법화론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전통 문법범주의 품사명 대신 내용어와 기능어라는 상위범주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2) 본고에서 기술하고 있는 '结果'의 기능은 백지훈,「'结果' 기능 연구」,『중국어어문논역총간』, 제34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14.01, p386-402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백지훈, 위의 논문은 현대중국어에서 '结果'의 기능적 다양성을 밝히는 것이 연구목적이었다면, 본고는 이를 토대로 '结果'의 다기능성을 문법화론의 입장에서 해석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바, 후속 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3)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 예문 뿐 아니라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부 예문은 백지훈,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예문(1)에서 ‘结果’는 명사로 사용되었다. 예문(2)-(4) 중의 ‘结果’는 각각 인과관계 표시, 역접관계 표시 및 모종의 사태가 결과 단계에 이르렀음을 표시하는 접속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예문(5)에서 ‘结果’는 명사도 아니고, 선, 후행 발화 간 존재하는 모종의 논리적 의미관계를 연결하는 접속사와도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문장 층위를 넘어 담화 층위에서 그 기능적 가치를 부여 받는 담화표지[4]로 사용된 것이다. 하나의 언어 형식에 일견 상호 관련성 포착이 어려운 몇 가지 기능이 할당되어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의 언어 기호가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수행할 때, 이러한 현상의 해석 문제는 언어학의 주요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두고 우리는 ‘분리’와 ‘통합’의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각각의 기능을 독립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그 정체성을 따져 볼 수도 있고, 하나로 범주화하여 통합된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두 입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방법론들이 해결책을 내 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법화론은 기능 간 존재하는 유연성(motivation)을 전제로 한 통합적 시각에서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시해 준다. 본고는 현대중국어에서 일정한 기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结果’를 문법화론의 입장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자연스레 아래의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结果’의 문법화 과정에서 관찰되는 문법 범주상의 표층적 변화인 ‘명사 ⇒ 접속사 ⇒ 담화표지’의 구체적 양상과 특징을 검토하고, 문법화의 주요 원리로 설명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범언어적으로 공통으로 발견되는 일부 경향성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될 것이다.

둘째, ‘명사 ⇒ 접속사 ⇒ 담화표지’라는 ‘结果’ 문법화 방향을 결정하고, 과정의 각 단계별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结果’의 의미범주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2. 현대중국어에서 ‘结果’의 기능[5]

문법화론에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 등 개방범주어(open class word)들을 통상 내용어라고 지칭하고, 전치사·후치사·대명사·접속사 등의 폐쇄범주어(closed class word)들을 기능어로 부른다. 이 구분법에 따라 현대중국어에서의 ‘结果’의 역할을 나누어 보면 내용어로서 명사, 기능어로서 접속사와 담화표지의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1) 명사 ‘结果’

‘结果’가 내용어로서 수행하는 역할 중 명사[6]로서의 기능은 아래 실례들을 통해 확인 할

4) 담화표지 기능에 대해서는 본고 2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5) 본 장의 주요 내용은 백지훈, 위의 논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结果’가 명사 뿐 아니라, 접속사, 담화표지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됨은 백지훈, 위의 논문 이전의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结果’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结果’에 대한 문법화론적 설명이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간략히 다루었다. ‘结果’ 각 기능의 보다 구체적 내용은 백지훈, 위의 논문을 참조 바람.

6) 내용어 ‘结果’로서의 기능에는 동사로서의 기능도 있다. 본고에서는 ‘명사-접속사-담화표지’를 하나의

수 있다.

(6) 检查的**结果**出来了，他得的是白血病。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가 걸린 병은 백혈병이다.

(7) 我从来不运动的**结果**就是越来越胖。운동과는 담 쌓고 지내온 결과는 다름 아닌 늘어가는 살이다.

(8) 这场比赛我没看完，不知道**结果**。이 경기를 나는 끝까지 보지 않아, 결과를 모른다.

(9) 明天去哪儿玩儿，他们正在商量，还没有**结果**。내일 어디로 놀러 갈지에 대해 그들은 상의 중이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상기 예문을 통해 드러나는 명사 '结果'의 통사적·의미적 특징 즉, '结果'를 명사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통사적 측면에서 명사 '结果'는 문장 내에서 예문(6)-(7)처럼 주어가 되거나 예문(8)-(9)처럼 목적어가 되는 등, 문 구성의 필수 성분을 담당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7], 대체로 다른 인접 성분들과 결합하여 상위 통사 단위를 구성한다. 예문(6)-(7)에서, '结果'는 각각 관형어 '检查', '我从来不运动'의 수식을 받아 '수식어-피수식어'라는 보다 크고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명사 '结果'는 대체로 특정 맥락에서 특정한 문장성분 값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삭제될 경우 출현 문장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가진다.

둘째, 의미적 측면에서 명사 '结果'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단계에서 사건, 현상의 발전이 도달한 최후 상태(result, outcome)'로 풀이된다. 이는 문장 전체의 명제의미 산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문장의 진위 여부에 영향을 주는 진리조건적 의미로 규정할 수 있다. 명사 '结果'가 갖는 이러한 개념의미(conceptual meaning)는 이후 논의하게 될 '结果' 문법화 과정 전반을 추동하고 지배하는 의미변화 과정에서 어원어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접속사 '结果'

아래 제시된 예문 중 '结果'는 명사 '结果'와 사뭇 달라 보인다.

(10) 他没有认真复习，**结果**考了个倒数第一名。그는 제대로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아서 꼴등을 했다.

(11) 挑来挑去没有一件合她的心意，**结果**空着手回来了。아무리 골라 봐도 단 한 벌도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빈손으로 돌아왔다.

(12) 挑选了半天，**结果**什么也没买。한 참을 골랐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13) 我去了好几家书店，**结果**还是没买到那本书。꽤 많은 서점을 가 봤지만, 그 책을 살 수 없었다.

기능적 연쇄로 보는 입장을 취하기에 동사 '结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7) 다음의 경우에서와 같이 '结果'가 인접 성분과 결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A : 你想知道什么?
B : 结果。

(14) ……你不知道，我姐是个铁杆儿的电视剧迷，那次为了看球，我给她说了一大车好话，她就是不买我的帐，后来我们俩只好打赌，**结果**，她不走运，输了，没看上那个什么电视剧，……

…… 넌 몰라, 우리 누나는 드라마 광팬인데, 그때 경기 중계방송 보려고 누나를 온갖 좋은 말로 구슬렸으나 통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기를 했는데, 운 없는 누나가 지면서 그 무슨 드라마를 못 보게 되었지, ……

(15) ……我找人给我父亲介绍个老伴儿，那个大妈人还挺好，可刚见过两回面儿，我爸爸就病了。昨天我爱人去那个大妈家，想听听人家的想法，**结果**吃了个闭门羹，我估计，这事儿八成得黄。

…… 난 아버지께 아주머니 한 분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 아주머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만난 지 몇 번 안 되었을 때, 아버지가 병이 나셨어요. 어제 제 신랑이 그 분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어 아주머니 댁으로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답니다. 제 생각에 이 일은 거의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상기 예문 (10)-(15) 중의 ‘结果’는 모두 접속사로 기능한다. 이는 통사적·의미적 측면에서 접속사가 일반적으로 갖는 아래의 몇 가지 특징들을 공유한다는 점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첫째, 통사적 측면에서 접속사 ‘结果’는 특정한 논리적 의미관계에 놓인 선·후행 발화의 중간에 사용되어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명사 ‘结果’와 달리 특정한 문장 성분이 되지 못하고,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인접 성분들과도 통사적 결합관계를 맺지 않아 상황에 따라 삭제되더라도 통사적 적법성에는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둘째, 의미적 측면에서 접속사 ‘结果’는 그 의미가 일정 정도의 탈색화를 거쳐, 명사 ‘结果’의 개념의미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 이로 인해, 출현한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 의미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비진리조건적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结果’의 접속사 기능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상기 예문 (10)-(15) 중의 ‘结果’는 모두 접속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 기능 범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结果’가 연결하는 선·후행 발화 사이의 의미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종의 이질성이 발견된다. 예문 (10)-(11)에서는 ‘结果’가 연결하는 선·후행 발화 간 인과성이 매우 뚜렷이 드러난다.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아무리 골라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원인과 ‘시험에서 꼴등을 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결과의 두 부분이 접속사 ‘结果’에 의해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예문(10)-(11) 중의 ‘结果’는 인과관계 표시 접속사로 보다 구체화하여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예문 (12)-(13) 중 ‘结果’에 의해 연결되는 선·후행 발화의 내용을 보면 인과성은 전혀 관찰되지 않고, 오히려 선행 발화의 내용을 통해 예측되는 결과를 위배하는 내용이 후행 발화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예문(12)의 경우, ‘한 참을 골랐다’면 무언가를 사게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기대와 달리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예문(13)은 ‘여러 서점을 다녔으면’ 그 책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역시 기대와 달리 ‘그 책을 사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점에서 예문 (12)-(13) 중의 ‘结果’는 역접(전환)관계 표시 접속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예문 (14)-(15) 중 ‘结果’에 의해 연결되는 선·후행 발화 사이에서는 인과성과 역접 그 어떤 의미관계도 포착되지 않는다. 다만 시간적 선후 관계에 놓인 전 단계의 사태와 결과적 내용에 해당하는 최종 단계 사태 사이에 사용되어, 양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통상 접속사는 연결하는 선·후행 발화의 논리적 의미관계에 따라 ‘인과관계 표시 접속

사', '역접(전환)관계 표시 접속사', '양보관계 표시 접속사', '조건관계 표시 접속사' 등 구체적인 이름을 갖는다. 따라서 예문 (14)-(15)와 같이 사용되는 '结果'에게도 보다 구체적인 명명법이 필요할 것이다. '结果'가 연결하는 선·후행 발화의 내용을 고려해서 본고에서는 이를 '사태 종결 표시 접속사'로 명명하기로 한다.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접속사 '结果'	인과관계 표시 접속사
	역접관계 표시 접속사
	사태 종결 표시 접속사

이처럼 '结果'가 상위 범주에서는 접속사라는 하나의 기능범주이지만, '인과관계 표시', '역접관계 표시', '사태 종결 표시' 등으로 세분될 수 있는 이질성 또한 분명 존재한다는 점은 흥미롭다. 기능 상호간의 이질성은 '기능적 분리'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고는 접속사 '结果'의 하위 기능들은 별개의 기능으로 분리되지 않고, 통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는 명사 '结果'가 갖는 어원어로서의 의미와 그 변화의 과정 즉, 문법화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자세한 논의는 3장에서 이어질 것이다.

3) 담화표지 '结果'

명사로서의 기능으로 볼 수 없고, 또 접속사와도 일정 부분 상이한 모습으로 사용되는 '结果'의 사용례가 있다. 앞서 제시한 예문 (5)를 다시 보자.

(5)

宁高宁 : 这个是很多人问的一个问题，我以前也讲过，孩子的名字是品牌嘛。我讲过一个故事给同事 : 一个家里面有三个孩子，老大名字不响亮，就叫老大。那么老二呢，就叫了很多的名字，叫了很多化名，很多。

主持人：别人给老二起了很多个名字?

宁高宁：那么老三呢，就一个名字，叫啤震天，我跟他们讲。

主持人：啤家的啤震天?

宁高宁 : 对，是的。**结果**这个啤震天最后呢，就当乡长了。当了乡长以后他父亲就奇怪，啤震天为什么可以做乡长呢? 乡里面开杂货铺的那个老板给这个父亲讲，说这很明白啊，孩子如果没有一个响亮的名字的话，他做不成人的。

(중략)

宁高宁：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啤震天은 나중에는 말이죠, 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친은 啤震天이 촌장이 된 사실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啤震天이 어떻게 촌장이 될 수 있었을까하고 말입니다. 마을에서 잡화점을 하던 주인이 그 부친에게 말하더랍디다. "이상할 것 없어요, 애가 이런 우렁찬 이름을 가지지 못했다면, 걘 사람 구실 못했을 거요."

예문 (5) 중의 ‘结果’는 명사로 볼 수 없다. 특정 문장 성분 역할을 하지 않고, 전후 인접한 그 어떤 성분과도 통사적 결합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삭제되더라도 적법성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통사적 수의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전후 맥락을 고려해 볼 때 ‘结果’의 개념의미와는 상당 부분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이 예문 중의 ‘结果’는 일견 접속사와 기능적 유사성이 있는 듯하다. 선·후행 발화 즉, ‘对，是的’와 ‘这个啤震天最后呢，就当乡长了。의 중간에 사용되어 양자를 구조적으로 연결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표층적으로 특정 발화 들 사이에 출현했다는 사실 만으로 접속사로 규정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접속사가 연결하는 두 부분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특정의 논리적 의미관계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문 (5) 중의 ‘结果’가 갖는 연결기능, 통사적 수의성, 비진리조건적인 의미적 특징 등으로 인해 접속사와 혼동할 수 있다[8]. 그러나 일반적인 접속사와 달리, ‘结果’가 연결하는 선후행문에서 모종의 논리적 의미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 3의 기능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结果’의 기능을 담화표지로 규정하고자 한다. 백지훈(2012:39-41)에 따르면, 담화표지란 언어 사용의 궁극적 목적인 성공적 의사소통을 위해 화자가 도입하는 화용적 책략어로서의 기능하는 일군의 언어 형식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화용적 책략어는 다시 의사소통의 중심을 이루는 메시지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는데 관여하는 부류와, 상호작용적 구어담화라고 하는 실제 언어 사용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등장하는 의사소통의 불완전성[9]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류로 세분된다. ‘结果’가 담화표지로서 수행하는 기능은 이 두 측면과 모두 관련된다. 담화표지 ‘结果’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예문 (5)의 대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조화해 볼 수 있다.

宁高宁 : 발화 개시(화제 도입 : 자녀의 이름 관련 내용)

↓

主持人 : 말 끼어들기에 의한 1차 발화 중단 (질문으로 선행 화자 발화 내용 중 일부 내용 확인)

↓

宁高宁 : 발화 지속(화제 전개)

↓

主持人 : 말 끼어들기에 의한 2차 발화 중단 (질문으로 선행 화자 발화 내용 중 일부 내용 확인)

↓

宁高宁 : 호응, 발화 지속 신호 및 마무리 (선행 화자의 질문에 호응, 이탈한 화제로 복귀 후 화제 마무리)

8) 담화표지 관련 대다수의 연구에서 담화표지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항목들이다.

9) 의사소통의 가장 전형적 양식인 일상의 면대면 대화는 비계획성, 즉시성 등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입말 의사소통이 언제나 유창하고 원활하게만 이루어 질 수 없다. 의사소통 중 머뭇거림, 주저함, 말더듬거림, 대화 상대의 말끼어들기로 인한 발언 중단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의 불완전성은 이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문 (5)의 전체 대화에서 주 화자 宁高宁의 발화는 총 두 번 중단된다. 첫 번째는 자신의 발화를 지속(那么老三呢, 就一个名字, 叫啤震天, 我跟他们讲)함으로써 화제의 연속성을 유지해 간다. 그러나 두 번째 발화가 중단되었을 때, 대화의 연속성을 유지하기위해 선행 화자의 질문에 '对, 是的'로 간단히 반응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산된 발화 '对, 是的'는 화제의 불연속성을 초래하게 된다. 선행 화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 '对, 是的'가 주 화제의 일부분인 후행 발화 '这个啤震天最后呢, 就当乡长了'와 의미적 연결성 없이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일상의 면대면 대화에서는 이와 같이, 중단 없는 발화 전개를 통한 화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화제의 전개 과정에서 이탈한 화제는 언제든지 원래의 화제로 복귀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화자에 의해 전달되는 화제는 일반적으로 '도입-전개-결말'이라는 구조적 완전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래의 화제로 복귀해 화제의 완전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발화를 바로 이어서 하기보다 화자의 일정한 화용적 조치가 선행된다. 담화표지 '结果'는 이 화용적 조치를 위해 동원되는 언어적 장치인데, 그 기능은 이탈한 화제로부터 본 화제로 복귀함을 알리는 신호로서의 역할이다. 담화표지 '结果'의 사용을 통해, 화자 宁高宁의 마지막 화번(말차례)이 '선행 화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对, 是的)' + '화제 복귀 신호(结果)' + '본래의 화제(这个啤震天最后呢, 就当乡长了。……)'라는 구조임을 드러내주고, 의미적 측면에서만 봤을 때 연결 상 포착되는 부자연스러움은 화용적 조치로서 담화표지 '结果'의 기능적 실체를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해소된다. 동시에 담화표지 '结果'는 발화가 담고 있는 화제의 단계별 성격을 암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도입-전개-결말의 거시적 화제 구조에서 담화표지 '结果'는 주로 전개와 결말 단계의 성격을 갖는 화제 사이에 사용된다. 예문 (5)의 경우, 宁高宁이 전달하고자 하는 화제는 총 세 차례의 말차례에 배분되어 있고, '结果'는 이 중 마지막 말차례에서 결말 부분의 성격을 띠는 발화 앞에서 사용되었다. 정보량이 많은 화제를 전달할 경우, 화자는 발화의 진행과정과 이와 연동되는 화제의 성격을 청자에게 알려주는 메타 화행적 발화 장치를 도입하기도 한다. 정보량의 과다는 청자에게 정보 수용의 부담을 지우게 되고, 이로 인해 정보의 순조로운 소통이 방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보는 가치중립적일 수도 있고, 배경정보와 전경정보의 분류처럼 경중이 구분되기도 한다. 전경정보의 출현 위치에 따라 '두괄식', '미괄식', '수미상관식'으로 구분 가능할 것이다. 담화표지 '结果'는 주로 '미괄식' 구조를 갖는 화제에서, 일종의 '화제 종결단계로의 진입'을 신호하는 기능으로 사용된다. 담화표지 '结果'의 이러한 신호기능은 청자로 하여금 화제 전개의 방향을 추론토록 하는 단서가 되어, 보다 효율적인 정보 수용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3. '结果'의 문법화

앞서 우리는 '结果'라는 하나의 언어 형태가 명사, 접속사, 담화표지 등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结果'라는 하나의 언어 형태가 맡고 있는 이러한 다기능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는데 문법화 개념은 매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준다. 본 장에서는 ‘结果’의 문법화 과정에서 관찰되는 통사적 측면의 변화와 여러 기능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는데 주요 근거가 되는 의미적 변화[10]에 나누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结果’ 문법화 과정에서 표층적으로 관찰되는 통사적 측면의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자.

1) 통사적 측면

문법화 과정에서 흔히 포착되는 통사적 변화가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가 탈범주화(Decategorialization)이다. Hopper(1991)에 따르면, 탈범주화란 특정 어원어가 문법소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명사, 동사와 같은 일차적 문법범주의 특성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부사, 전치사, 후치사 등과 같은 이차적 문법범주의 특성을 띠게 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11] 다시 말해, 문법범주의 위계적 구분에 따른 주범주에서 부범주로의 변화를 설명하는 탈범주화는 아래와 같은 연속 변이로 정리될 수 있다.

주범주(일차적 법주) 부범주(이차적 범주)
명사/동사 ⇒ 형용사/부사[12] ⇒ 전치사, 후치사/접속사(담화표지)[13]/조동사/대명사/지시사

탈범주화의 실례는 범언어적으로 흔히 관찰되는데, 영어와 한국어의 예를 들어 살펴보자.[14]

(16-1) [Carefully considering, Having carefully considered] all the evidence, the panel delivered its verdict. 모든 증거를 조심스럽게 고려한 후에 심사원단은 그 평결을 내렸다.

(16-2) [Considering, *Having carefully considered] you are so short, your skill at basket

---

10) 문법화 과정에서 어원어가 가지고 있던 구체적 어휘의미는 통상 일반화, 추상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변화는 해당 어휘소가 문법화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법화 학자들의 견해에는 이견들이 존재한다. Lightfoot은 통사변화 후에 의미변화가 생겨난다고 보았고, Hopper&Traugott은 의미변화가 통사변화를 동반한다고 보았으며, Heine et al도 이와 유사하게 인지, 의미적 변화가 생긴 다음 통사적 변화나 다른 변화가 뒤따른다고 보았다. 본고는 Hopper&Traugott과 Heine et al의 견해를 따르며, 따라서 ‘结果’ 문법화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의미변화 양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11)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1998, p.186 참조.

12) 형용사와 부사의 문법범주의 위계 구분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부사의 문법범주적 위계 설정이 문제가 되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이성하, 위의 책, pp.106-109 참조.

13) 이 연속 변이 모형은 문법화론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로 문장층위에 국한된 품사 중심의 분류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접속사와 담화표지를 한데 묶어 기술하였다. 왜냐하면 특정 문법소의 기능적 정체성을 보다 폭 넓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문장층위에만 국한될 경우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담화층위로 그 분석 단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담화표지는 화용적 접속어라고도 불리는 바, 그 기능적 특징이 문장 접속사와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분석 층위의 통합 및 기능적 유사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밝혀둔다.

14) 이성하, 위의 책, pp.186-188에서 재인용.

ball is unexpected.

상기 예문 (16-1)에서 considering은 부사의 수식을 받고, 현재와 과거 시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주절 주어와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의 일치도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범주(major category)의 하나인 동사로서의 통사적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예문 (16-2)에서 considering은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에 예문 (16-1)에서 보이는 동사로서의 통사적 특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탈범주화 즉, 범주 간 이동에 따른 문법적 자질의 상실이 명확히 포착되고 있다. 현대 영어에서 접속사로 흔히 사용되는 while(while we were sleeping)의 경우도 원래는 명사 hwil에서 유래한 것으로 담화상에서 시간 관계 표시의 접속사로 문법화 되었다. Hopper&Traugott(1993:104)에 따르면, 접속사 while은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근거로 명사로부터 범주적 이탈을 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a) 관사나 양화사와 공기할 수 없다.
b) 형용사, 지시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c) 주어 역할을 할 수 없고, 동사의 논항이 될 수 없다.
d) 문장 내 분포적 제약으로 절의 첫머리에만 사용될 수 있다.
e) 조응적 대명사에 의해 지시될 수 없다.

탈범주화의 예는 한국어에서도 관찰된다. 안주호(1997:288)에 따르면, '-ㄹ테-'는 원래 명사에서 비롯되었지만 선어말어미로 문법화 되면서 명사의 일반적 특징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김기혁(1995:453-454)에서는 '앉다'와 '자빠지다'가 문법화 결과 본동사가 아닌 보조동사로 사용되면서 관찰되는 동사로서의 전형성을 많이 상실한 범주적 변화를 탈범주화의 실례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结果'의 문법화 과정에서 포착되는 범주 이탈의 구체적 양상은 어떨까? 앞서 2장에서 살펴본 '结果'의 기능을 탈범주화의 일반적 경로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주범주		부범주
명사	⇒ 접속사	⇒ 담화표지

이러한 연속 변이는 통시적 언어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된다. 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中心(CCL) 고대중국어 말뭉치자료 검색 결과 '结果'의 사용례는 중고시기와 조기관화 시기[15]에 주로 명사로서 사용되고, 일부 접속사로 사용되는 실례들도 있다.

15) 중국어사 시기구분에 관해 여러 학자들의 다소 상이한 시기 구분이 있다. 王力는 상고중국어(BC 300년 이전), 중고중국어(AD 400년-AD 1100년), 근대중국어(AD 1300년-AD 1800년), 현대중국어(AD 1900년-현재)로 구분하였다. 吕叔湘은 고대중국어(BC 500년-AD 700년), 조기관화(AD 701년-AD 1900년), 현대중국어(AD 1900년-현재)로 구분하였다. 최근의 시기 구분을 대표하는 학자인 石毓智의 경우 고대중국어(BC 500년-BC 200년), 중고중국어(BC 199년-AD 900년), 조기현대중국어(AD 901년-AD 1500년), 현대중국어(AD 1500년-현재)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문법화 연구를 주목표로 중국어사 시기 구분을 한 대표적인 학자는 孙朝奋을 들 수 있는데, 그는 고대중국어(BC 500년-AD 200년), 중고중국어(AD 201년-AD 1000년), 조기관화(AD 1001년-AD 1900년), 현대중국어(AD 1901년-현재)로 구분하고 있다. 본고는 이 시기구분에 따라 통시적 언어자료를 검색하였다.

(17) ……但是议约的**结果**，总是赔款割地，大损国威。

(18) 他姐姐伏侍了我一场，没个好**结果**，剩下他妹妹跟着我，吃个双分子也不为过逾了。

(19) 凭他说得那么好法，偏偏运气不好，**结果**，不但把背城的资本，一赌而空，还欠了人家一大笔钱……

(20) 所以修道之人，真是万分不易。往往修炼千年，**结果**，逃不出一个色字关头。

예문(17)-(18)에서 ‘结果’는 각각 명사로 사용되었다. 이 때 ‘结果’는 명사가 갖는 전형적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문(17)에서 ‘结果’는 주어 역할을 하고, 예문(18)에서는 목적어로 동사의 논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사 또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전후 인접한 다른 성분들과 통사적 결합관계를 맺어 보다 큰 통사적 단위를 형성하는 명사의 전형적 특징 중 하나이다.

반면에 예문(19)-(20) 중의 ‘结果’는 접속사로 사용된 실례인데, 명사 ‘结果’가 갖는 문법범주적 특징의 상실이 뚜렷이 관찰된다. 두 예문 중의 ‘结果’는 주어, 목적어 등 문장성분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통사적 독립성을 보이며 인접한 다른 성분들과 결합관계를 맺지 않는다. 주범주인 명사 ‘结果’로부터 이탈하면서 보이는 부차적 범주의 특징들인 것이다.

명사 ‘结果’가 접속사 ‘结果’로 문법화 되면서 보이는 탈범주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명사 ‘结果’와 접속사 ‘结果’ 선후에 출현하는 성분들의 성격 변화인데, 이는 명사 ‘结果’가 접속사 ‘结果’로 문법화 되는데 있어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结果’가 명사로 사용될 경우 형성하는 구조적 특징을 아래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a. 주어로 사용될 경우 : [NP+结果]+VP
b. 목적어로 사용될 경우 : VP+[(NP)结果]

이 중 ‘结果’가 주어로 사용될 경우의 도식인 ‘[NP+结果]+VP’가 접속사 ‘结果’ 탄생의 구조적 환경을 마련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접속사의 주 기능을 연결이라고 볼 때, 연결되는 전후 인접 성분의 존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结果’의 선행성분은 출현하지만, 뒤따르는 성분이 없어서 연결의 전제가 되는 두 인접성분의 존재를 담보할 수 없는 ‘结果’가 목적어로 사용될 경우의 통사적 구조(VP+[(NP)结果])는 접속사가 되기 위한 구조적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명사 ‘结果’가 주어로 사용될 경우 ‘结果’ 앞의 NP는 단어와 구 형태로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结果’가 접속사로 사용될 경우 선행하는 NP 자리에 의미적 완결성을 갖는 절 형태가 출현하게 되는 변화 양상을 보인다. 앞서 든 예문 (7)을 다시 보자.

(7) 我从来不运动的**结果**就是越来越胖。

상기 예문에서 ‘结果’는 분명 명사로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结果’의 앞뒤 성분을 보면, 전형적인 ‘[NP+结果]+VP’ 구조와는 다른 점이 포착된다. ‘结果’ 앞뒤

성분, 특히 선행 성분이 단어나 구 형태가 아닌 절 형태(我从来不运动)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형태의 사용례는 명사 '结果'에서 접속사 '结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과도적, 예비적 단계로서 접속사 '结果' 출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구조적 환경 변화이다. 이 구조적 환경 변화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 해 볼 수 있다.

[NP+结果] + [VP] ⇒ [SP+结果] + [VP]

'结果' 선행 성분이 NP에서 SP 형태로 바뀌면서 또 다른 변화도 관찰된다. 기존의 NP와 '结果' 사이에 종종 출현하던 구조조사 등의 통사적 이음 장치들이 더 이상 통사적 필수 요소가 아닌 수의적 성격이 강해진다. 따라서 예문(7)은 문장이 전달하는 명제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적법성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다시 써 볼 수 있다.

(7)′ 我从来不运动, **结果**, 越来越胖。

이처럼 과도 단계의 구조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완전한 접속사가 되는 데에는 재분석[16]의 기제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언어 형태의 구조적인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재분석에 의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사적 측면의 변화가 완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NP+结果] + [VP] ⇒ [SP+结果] + [VP] ⇒ [SP] + [结果] + [VP]

접속사 '结果'의 또 다른 사용례(상기 예문(4))는 명사에서 접속사로의 변화 과정에서 보이는 통사적 변화의 틀에서 동일하게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结果'의 담화표지로서의 사용례(상기 예문(5))는 접속사에서 한 걸음 더 문법화한 것으로 보인다. "문법화란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파생형에서 굴절형으로의 변화처럼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범위가 증가되는 현상이다."[17]로 규정한 Kurylowicz(1975:52)정의에 따르면, 동일한 기능어로 분류되더라도 기능어간에 문법화의 정도성을 구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담화표지 '结果'는 일종의 화용적 연결어로서, 화자의 발화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발언권을 얻어 원래의 화제로 연결될 경우 사용된다. 담화표지 '结果'가 문장 접속사 '结果'와 연결이라는 특징을 공유하기는 하지만, 발화 첫 머리에 출현할 수 있고, 연결되는 두 절(발화)이 인접해 출현하지 않으며, 연결되는 두 절(발화) 사이에 일정한 논리적 의미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의 수의성 정도가 문장 접속사보다 강하다는 점 등의 통사적 측면의 변화를 고려하면, 문법화가 보다 더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结果' 문법화 과정에서 관찰되는 표층적 측면 즉, 통사적 측면의 변화 양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结果'가 명사에서 접속사와 담화표지로 문법화될 때 관찰되는 통사적 변화는 탈범주화로 설명된다. 명사라는 일차적 문법범주의 특징을 상실하고 이차적 문법범주로서의 특징을

16) 재분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1998, pp.240-242 참조.
17) 이성하, 위의 책, p.23에서 재인용.

가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타 언어권에서 관찰되는 문법화 실례들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현상으로 문법화 과정 중 통사적 측면의 변화에서 보이는 보편성을 뒷받침하는 한 사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둘째, 명사 ‘结果’에서 접속사 ‘结果’로의 문법화 될 때, 통사적 환경 변화가 과도적 단계로서 존재하고, 여기에 재분석의 문법화 기제가 작동해 통사적 측면의 변화가 완성된다.

2) 의미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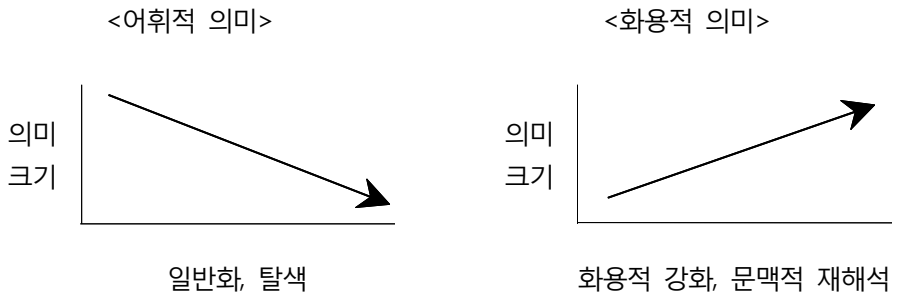
명사 ‘结果’가 접속사로, 접속사에서 다시 담화표지로 문법화되는 과정에서 어원어로서 명사 ‘结果’의 의미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원결정가설(source determination hypothesis)[18]에 따르면, 어원어의 의미는 특정 내용어가 문법소로 변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종류의 문법소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문법화에서 의미변화가 통사적 변화를 이끈다”라고 한 Hopper&Traugott(1994)의 견해 역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명사 ‘结果’가 갖는 어원어로서의 의미는 ‘在一定阶段事物发展变化的最后状态’로 정의된다. 그런데 이 의미는 문법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변화된다.

a. 谈判的**结果**非常圆满。
b. 我的汽车坏在半路上了，**结果**我只好走路回家。
c. 大夫们进行了紧张的抢救，**结果**他却死了。
d. 排球赛激烈地进行了两个小时，**结果**北京队赢了。
e.
宁高宁 ： 这个是很多人问的一个问题，我以前也讲过，孩子的名字是品牌嘛。我讲过一个故事给同事 ： 一个家里面有三个孩子，老大名字不响亮，就叫老大。那么老二呢，就叫了很多的名字，叫了很多化名，很多。
主持人：别人给老二起了很多个名字?
宁高宁：那么老三呢，就一个名字，叫啤震天，我跟他们讲。
主持人：啤家的啤震天?
宁高宁 ： 对，是的。**结果**这个啤震天最后呢，就当乡长了。当了乡长以后他父亲就奇怪，啤震天为什么可以做乡长呢? 乡里面开杂货铺的那个老板给这个父亲讲，说这很明白啊，孩子如果没有一个响亮的名字的话，他做不成人的。

a는 명사로 사용된 ‘结果’이고, b-d는 모두 접속사로 사용된 ‘结果’이며, e는 담화표지 ‘结果’이다. 이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명사 ‘结果’의 경우 어원어로서의 의미가 매우 뚜렷이 포착된다. 반면에 접속사로 사용된 경우에는 명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의미의 구체성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e의 담화표지 ‘结果’는 어원어의 의미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탈색되어 있다. 이처럼 어휘소의 의미가 구체성과 특수성을 잃고 일반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의미변화를 문법화론에서는 의미의 일반화라고 부른다. Bybee & Pagliuca(1985:63)에 따르면 의미의

18) 어원결정가설의 자세한 내용은 이성하, 위의 책, pp.189-192 참조.

일반화로 인해 해당 어휘소가 쓰일 수 있는 범위와 분포의 확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结果'의 의미가 일반화되지 않고, 명사로서 어휘의미의 구체성과 특수성을 계속 유지했다면 접속사와 담화표지로 사용될 수 있는 기능적 확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의미의 일반화 과정을 통해 의미가 약화되어 가긴 하지만 접속사 단계까지는 '结果'의 어원어로서의 의미가 어느 정도 포착되는 것도 사실이다. 접속사로 사용되는 '结果'에서 명사 '结果'의 의미적 '잔영'이 감지되는 것이다. 이 점은 문법소가 어원어의 의미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의미지속성(Persistence)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의미지속성 원리가 '结果' 문법화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结果'가 담화표지로 문법화되고 나면 상기 예문 e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이상 어원어로서의 의미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법화에서 생겨나는 의미변화의 보편적 경로인데 탈의미화, 의미고갈, 탈색 등으로 불린다. 그런데 이러한 탈색모형(Bleaching Model)대로라면 문법화에서 나타나는 모든 어휘소는 변화의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는 '의미적 공백' 상태가 되어버리는 매우 비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의미가 비어있는 언어 기호는 존재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문법화되는 어휘소라면 최종적으로는 모두 소실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문법화의 과정에서는 의미가 일반화되고 탈색되어가는 현상이 분명 존재하지만, 동시에 의미추가 현상도 일어난다. 문법화 과정 중 의미변화에 나타나는 의미 소실과 의미 추가의 균형성은 잃고-얻기 모형(Loss-and-Gain Model)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结果'가 담화표지로 문법화 되면 어휘적 의미는 점차 소실된다. 그러나 동시에 담화층위 즉, 실제의 대화 행위에서는 중단된 발화에 의해 '이탈된 화제로의 복귀를 신호하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화용적 의도'를 나타내는 화용적 책략 의미를 얻게 된다. 이는 화용론적 강화에 따른 문맥적 재해석의 결과에 의한 것이다.[19] 잃고-얻기 모형에 따른 '结果' 의미변화 양상을 도식화 해보면 아래와 같다.



<잃고-얻기 모형에 따른 '结果' 의미변화 양상>

잃고-얻기 모형에 따른 '结果'의 의미변화는 주관화라는 개념으로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다.

19) 최근 통시적 관점에서 내용어가 기능어로 변모한 결과를 연구대상으로 삼던 전통의 문법화론과 다른 시각에서 언어변화를 다루고자 하는 이른바 '공시적 문법화'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문법이 실제 언어가 사용되는 담화 상에서 동기가 부여되어 생성된다는 시각의 Hopper의 동태적 문법(emergent grammar)이나, Givon(1971)이 주장한 '화용론 → 통사론 → 형태론'으로의 언어 변화의 방향성과 관련된 개념 및 언어변화의 동기를 인간의 인지적, 화용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시도하는 모든 개념들이 통합되어 공시적 문법화의 유용한 설명적 틀이 되고 있다.

이성하(1998:153)에서는 주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주관화는 주로 언어 형태의 의미적 변화를 설명하는 기제로서 언어 형태의 의미가 변화할 때 덜 주관적인 의미에서 점점 더 주관적인 의미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즉 명제 혹은 외연 위주의 의미에 화자가 자신의 관점을 투사함으로써 점점 주관적인 의미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화는 실제적 상황에서 담화적 상황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주관화로 설명되는 의미변화 양상은 다시 아래와 같은 의미-화용적 경향의 세 유형으로 세분된다(Traugott&König, 1991:208-209).

> a. 의미-화용적 경향 Ⅰ : 외적인, 기술된 상황에 기초한 의미로부터 내적인, 평가/인식/인지에 기초한 의미로 변화한다.
> b. 의미-화용적 경향 Ⅱ : 외적 또는 내적인, 기술된 상황에 기초한 의미로부터 텍스트에 기초한 의미로 변화한다.
> c. 의미-화용적 경향 Ⅲ : 상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신념/태도의 의미가 점점 더 강한 주관적인 신념/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结果’가 명사로 사용될 때의 의미는 실제 세계를 표상한 개념의미였다. 이후 접속사로 문법화 되면서 의미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의미-화용적 경향 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정한 단계에서 사물 변화 발전의 최후 상태’라는 명제의미가 텍스트 내 특정한 두 성분을 연결하는 의미로 변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속사는 다시 담화표지로 문법화 되는데, 이 경우 ‘结果’의 의미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고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화자의 주관적 신념, 태도와 관련된 의미이다. 이는 의미-화용적 경향 Ⅲ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의미-화용적 경향 Ⅱ에 의한 의미변화의 결과 접속사로 문법화 될 때 발견된다. 앞서 2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접속사 ‘结果’는 다시 ‘인과관계 표시’ 접속사, ‘역접관계 표시’ 접속사, ‘사태 종결 표시’ 접속사로 하위범주화 된다고 하였다. 접속사 ‘结果’에 의해 연결되는 두 부분의 의미관계가 ‘인과’, ‘역접’, ‘사태 종결’ 등으로 이질적이어서 일견 ‘结果’의 어원어로서의 의미 하나로 통합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사건, 사태의 최후 단계’임을 의미하는 ‘结果’의 ‘의미 중립성’이다. ‘사건, 사태의 최후 단계’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어휘소로 ‘成果’와 ‘后果’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어휘가 문법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 의미가 갖는 의미적 특수성과 편중성 때문이다. 반면에 ‘结果’의 경우 그 의미가 특정한 의미만을 지향하지 않는 중립적 의미이기 때문에 접속사로 문법화된 후, 후행 발화가 나타내는 ‘최후 단계’가 특정한 한 방향의 의미가 아닌, ‘선행발화의 내용이 유도하는 순행적 결과(인과관계 표시)’, ‘선행발화의 내용이 유도하는 것과 역행하는 결과(역접관계 표시)’, ‘인과관계도 역접관계도 아닌 사태 추이의 최종 단계(사태 종결 표시)’ 등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结果’ 문법화 과정에서 관찰되는 의미적 측면의 변화 양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结果’의 의미는 일반화 된다. 이로 인해 ‘结果’가 명사에서 접속사와 담화표지로 문법

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

둘째, 접속사 단계 까지 '结果'의 어원어로서의 의미가 지속된다. 접속사 '结果'에서 포착되는 의미적 잔영은 이 의미지속성 원리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셋째, '结果'가 문법화되면서 소실되는 어휘의미와 동시에 얻게 되는 화용적 의미는 잃고-얻기 모형의 틀에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주관화의 개념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넷째, '结果'의 의미적 중립성이 세 유형의 접속사에서 포착되는 의미적 이질성을 설명할 수 있다.

4. 맺음말

현대중국어에서 '结果'는 다기능성을 갖는다. 주요 기능은 명사, 접속사,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으로 대별된다. 본고는 현대중국어에서 '结果'가 이루고 있는 기능적 범주를 문법화의 결과로 보고 이를 문법화론의 시각에서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 논의는 통사적 측면의 변화와 의미적 측면의 변화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통사적 측면에서 '结果'의 문법화 과정은 탈범주화의 과정이다. 주범주인 명사에서 부차적 범주인 접속사와 담화표지로 변화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특징은 한 마디로 통사적 독립성(비의존성)의 확보로 정리될 수 있다. 아울러 통사적 환경의 변화도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었다. 명사 '结果'가 접속사 '结果'로 되는 과정에서 명사와 접속사의 과도적 단계를 제시하고, 완전한 접속사로 변화하는 과정에 재분석 기제가 작동하였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结果'의 의미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문법화에서 의미변화는 문법화의 출발점이자 문법화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먼저 어원어로서의 명사 '结果'의 의미가 일반화됨으로써 명사에서 접속사, 담화표지 등으로 기능적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리고 일견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 세 기능은 명사 '结果'의 의미가 비록 일반화되었지만, [+최종 상태]라는 의미적 자질의 지속적 유지 즉, 의미지속성 원리에 의해 통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아울러 문법화론에서 의미변화를 다룰 때 흔히 제시하는 탈핵 모형(Bleaching Model)에 의하면 '结果'의 의미도 변화의 최종 단계에서는 완전한 의미적 소실의 운명을 맞겠지만, 문법화의 최종 단계인 담화표지 '结果'가 상실한 어휘의미를 대신해 화용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잃고-얻기 모형(Loss-and-Gain Model)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참고문헌】

안주호,『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1997.

이성하,『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1998.

백지훈,「‘结果’ 기능 연구 — 접속사, 담화표지의 기능을 중심으로」,『中國語文論譯叢刊』, 제34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14.01.

Bybee, Joan L, “Morphology: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9, 1985.

Kurylowicz, Jerzy, “The evolution of grammatical categories”, *In Coseriu*, 1975.

Traugott, Elizabeth Closs, & Ekkehard König, “The semantics-pragmatics of grammaticalization revisited”, *In Traugott and Heine*, Vol.1, 1991.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连词, 话语标记, 语法化, 句法, 语义, 非范畴化, 重新分析
	영문	grammaticalization, decategorization, reanalysis, persistence, generalized

A study of grammaticalization of '结果'

Baek, Ji-Hun

'结果' is multifunctional in the modern Chinese language. It mainly functions as a noun, a conjunction or a discourse mark. This article considers the categories of '结果''s functions as a result of grammaticalization and tries to examine them from the view of grammaticalization theories. The research was focused on the changes in two different levels - syntactic and semantic, and the conclusions drawn are as below;

Firstly, at a syntactic level, the grammaticalization of '结果' is a process of decategorization. The process that '结果' changes from a noun which is a main category to a conjunction and to a discourse mark which are minor categories, can be described as a process of obtaining syntactic independence (non-dependency).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changes of syntactic circumstances. It presents a transitional stage from a noun '结果' to a conjunction '结果', and explains that a reanalysis mechanism has worked during this process.

Secondly, the grammaticalization of '结果' is observed at a semantic level. The changes of meaning of a word in grammaticalization is important since it is the starting point of grammaticalization, and it operates the process as well. First, the meaning of the noun '结果' as a root word had generalized and then it provided the possibility of functional extending to a conjunction and a discourse mark. These three functions might be seen different mutually at the first glance, but they are sharing the semantic feature of [+final status] on the basis of a persistence principal even though the meaning of '结果' is generalized.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백지훈 / 白枝勳 / Baek, Ji-Hun		
	소 속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Em@il	dashan7272@naver.com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7년 07월 31일	심 사 일	2017년 09월 08일
	수 정 일	2017년 09월 15일	게재확정일	2017년 09월 25일